

거실공간과 가구사용에 대한 주부와 여대생의 의식 및 실태

A Study on the Attitude and the Actual Condition between Housewives and Woman University Students about Furniture Usage and Living Room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연구조교 임 소 연

석사과정 장 서 윤

조 교수 안 옥 회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

Research Assistant : So Yeon Lim

Master's Course : Seo Yun Jang

Assistant Prof. : Ok Hee An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III. 결과 및 분석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usage that all family members could find satisfaction in the way to use furniture and living room.

First of all, methods of research for this purpose were to grip on the points of difference and sameness on the attitude and the actual condition about furniture usage and living room between housewives and woman university students. To make analysis the data, frequency, χ^2 -test, t-test, F-test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sing time, time zone and life behavior in living room.
2. In furniture usage, housewives and woman university student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king investigation in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furniture and living room usage, housewives and woman university student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 서 론

오늘날 산업발달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생활이 사회화됨에 따라 주공간 기능이 축소·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단란과 화목을 위한 거실의 기능은 오늘날까지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가족위기와 해체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단란을 위한 대표적 공적 공간인 거실은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거실이 사용자인 가족 전체를 위해 그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사용안이 필요하다.

한편 주공간은 가구의 소유와 적절한 배치에 의해 그 사용정도와 사용평가가 달라지며 가구는 인간과 가장 친숙한 매체로 거주자인 인간에게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조원덕, 1990)이다. 즉 물리적 환경인 공간속에서 가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공간 자체의 기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거실은 가족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서 생활양식과 조건이 다른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족원의 거실공간 사용실태 및 의식을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거실공간내에서의 가구사용 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거실공간과 가구사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주부뿐만 한정하여 주부의 타가족원의 욕구나 주부세대외의 다른 세대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머물고 그 연구결과로 미래의 공간이나 가구사용계획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와 주부외의 타가족원이면서 예비주부 세대인 여대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주부와 예비주부인 여대생을 선정하는 이유는 주부는 거실공간이나 가구사용의 주체로 움직이는 인적자원이므로 이들의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한 것이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지금 현재 공간이나 가구사용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나 가까

운 미래에 주부가 되어 공간과 가구사용을 가정내에서 주도할 것이므로 주부외의 다른 가족원들 중에서는 공간과 가구사용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성세대인 주부와 미래의 주부가 될 여대생의 공간과 가구사용에 대한 의식 및 실태에 대한 비교를 한 연구가 기존에는 없었으나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현상까지를 짐쳐 볼 수 있다는데 본 연구대상 선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는 미래의 공간 및 가구사용 계획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주부와 여대생의 거실공간과 가구의 사용의식 및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세대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1.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부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실 및 가구사용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실가구 사용현황을 파악한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형제수, 자녀수, 가족수, 월평균 수입, 주택유형, 주택소유상태, 집전체 평수, 방의 갯수

거실공간에 대한 사항 : 거실의 사용형태, 거실의 사용양식, 거실의 사용시간, 생활행위, 거실공간 만족도(넓이 만족도, 사용 만족도), 거실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실가구에 대한 사항 : 거실가구 구입사항, 가구 소유 형태(건축계, 인체계), 가구배치 형태, 가구사용 정도, 거실가구 사용에 대한 의식(편리도, 배치 만족도, 가구량 만족도)

2. 용어의 정의

1) 거실의 사용형태

거실의 사용형태는 주공간내에서 사용자가 거실을

사용함에 있어 타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거실전용과 타실과의 겸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공간 내에서 거실이 고유한 거실기능을 수행할 때 거실전용으로, 거실외의 타실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타실과의 겸용으로 분류한다.

2) 거실의 사용양식

거실공간에서 생활하는 자세를 중심으로 의자식, 좌식, 의자식과 좌식이 병행된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3) 가구의 분류

가구의 분류는 인간공학적 분류(인체계 가구, 준인체계 가구, 건축계 가구, 에너지계 가구, 스페이스계 가구)에 따랐으나 본 연구의 대상공간이 거실공간이므로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준인체계 가구 포함)로만 구분하였다. 건축계 가구는 수납의 크기, 수량, 중량 등과 관계하며 실내 기둥간의 치수, 벽의 길이, 천장의 높이 등의 스페이스 조건에 지배되는 것으로 건축의 일부의 성격을 지니며 장식장, 벽장, 선반, 서랍, 칸막이 등이 이에 속한다. 인체계 가구는 인체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신체의 본질에 가까운, 직접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이다. 작업의자, 휴식의자, 침대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준인체계 가구는 간접적으로 인간에 관계하고 인간동작에 보조가 되는 가구로서 테이블, 주방작업대 등인데 본 연구에서는 인체계 가구에 포함시켜 파악하였다(안옥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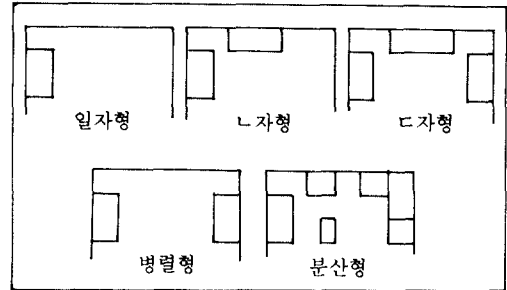
4) 가구소유 형태

거실내에서의 가구소유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건축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를 모두 소유한 경우, 건축계와 인체계 모두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5) 가구배치 형태

가구의 배치형태는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로 분류하여 먼저 건축계 가구는 크게 5종류로 일자형, L자형, D자형, 병렬형, 분산형으로, 인체계 가구는

일자형, L자형, D자형, 대면형, 분산형으로 크게 4종류로 구분한다.



〈그림 1〉 가구의 배치형태

3.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연구의 대상은 Y 대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주부로 하였다. 조사는 1994년 10월에서 1994년 12월에 걸쳐 각각 150부씩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 등을 제외하고 여대생 148명, 주부 108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자료로 삼았다.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 .6925$ 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χ^2 -검증, t-test, F-test, 요인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2. 거실공간에 대한 실태 및 의식

1) 거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의 제요소(양, 배치, 색, 형태, 재질), 마감재의 제요소(색, 재질), 커튼·조명의 제요소(종류, 디자인)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변인	주부		변인	여대생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본인 연령	45세 이하	16(14.8)	어머니 연령	45세 이하	49(33.1)
	46 - 50세	76(70.4)		46 - 50세	63(42.6)
	51세 이상	16(14.8)		51세 이상	31(24.3)
	평균	46.704		평균	48.236
	계	108(100.0)	계	143(100.0)	
본인 학력	중졸 이하	28(26.7)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50(35.0)
	고 졸	53(50.5)		고 졸	72(50.3)
	대졸 이상	24(22.9)		대졸 이상	20(14.0)
	계	108(100.0)		계	143(100.0)
본인 직업	무 유	76(70.4)	어머니 직업	무 유	110(76.9)
	유	32(29.6)		유	33(23.1)
	계	108(100.0)		계	143(100.0)
	평균	51.817		평균	54.527
남편 연령	50세 이하	61(56.4)	아버지 연령	50세 이하	59(39.9)
	51세 이상	47(43.5)		51세 이상	79(60.1)
	계	108(100.0)		계	138(100.0)
	평균	51.817		평균	54.527
남편 학력	중졸 이하	10(10.4)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25(18.1)
	고 졸	42(43.8)		고 졸	64(46.4)
	대졸 이상	44(45.8)		대졸 이상	49(35.5)
	계	108(100.0)		계	138(100.0)
남편 직업	생산노무직	8(7.9)	아버지 직업	생산노무직	13(8.8)
	판매서비스직	26(25.7)		판매서비스직	33(25.2)
	사무직	25(24.8)		사무직	43(32.8)
	행정관리직	31(30.7)		행정관리직	36(27.5)
	전문기술직	11(10.9)		전문기술직	6(4.6)
	계	108(100.0)		계	131(100.0)
자녀수	1명	15(14.4)	형제수	1명	4(2.7)
	2명	42(40.4)		2명	43(29.1)
	3명	36(34.6)		3명	70(47.3)
	4명	11(10.6)		4명	31(20.9)
	평균	2.385		평균	2.865
	계	108(100.0)		계	148(100.0)
가족수	3명	15(14.4)	가족수	3명	8(5.4)
	4명	41(39.4)		4명	37(25.0)
	5명	33(31.7)		5명	63(42.6)
	6명	15(14.4)		6명	40(27.0)
	평균	4.413		평균	4.926
	계	108(100.0)		계	148(100.0)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8(7.4)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4(2.7)
	100-200만원 미만	45(41.7)		100-200만원 미만	73(50.0)
	200-300만원 미만	40(37.0)		200-300만원 미만	50(34.2)
	300만원 이상	15(13.9)		300만원 이상	19(13.0)
	계	108(100.0)		계	146(100.0)
주택 유형	독립주택	59(54.6)	주택 유형	독립주택	96(64.9)
	공동주택	49(45.4)		공동주택	52(35.1)
	계	108(100.0)		계	148(100.0)
주택 소유 상태	소유	90(83.3)	주택 소유 상태	소유	135(91.2)
	타가	18(16.7)		타가	13(8.8)
	계	108(100.0)		계	148(100.0)
집전체 평수	27평 이하	32(29.6)	집전체 평수	27평 이하	31(21.2)
	28평 - 38평	29(26.9)		28평 - 38평	52(35.0)
	39평 - 48평	16(14.8)		39평 - 48평	28(19.2)
	49평 - 59평	25(23.1)		49평 - 59평	19(13.0)
	60평 이상	6(5.6)		60평 이상	16(11.0)
	평균	36.454		평균	38.959
	계	108(100.0)	계	146(100.0)	
방의 갯수	2개	11(10.2)	방의 갯수	2개	8(5.4)
	3개	50(46.3)		3개	65(43.9)
	4개	47(43.5)		4개	75(50.0)
	평균	3.380		평균	3.831
	계	108(100.0)		계	148(100.0)

주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중 거실 분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부와 여대생의 의식비교 결과, 주부와 여대생 모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의 제요소(각 66.7%, 56.2%)를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주부와 여대생 모두 거실공간의 분위기를 가장 좌우하는 요인이 가구의 제요소라고 지적하여 거실공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의 재질, 디자인, 색, 점유율, 배치, 벽면가구의 높이를 지적한 선행연구(田中, 1990 ; 이명옥, 1991)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거주가족이 원하는 거실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구의 구입과 배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거실공간의 사용시간

거실공간의 사용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시작시간과 끝시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표 2).

〈표 2〉 거실사용 시작시간·끝시간

오전사용 시작시간	변인	구분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오전사용 시작시간	주부	1.7	10.0	15.0	15.0	30.0	18.3	10.0					
	여대생	2.4	23.8	35.7	27.4	7.1	3.6	0.0					
	비교	$\chi^2=38.95808$ *** df=6											
오전사용 끝시간	변인	구분											
	주부	0.0	1.7	6.7	10.0	20.0	25.0	36.7					
	여대생	1.2	25.0	23.8	26.2	17.9	2.4	3.6					
	비교	$\chi^2=61.41173$ *** df=6											
	오전사용 시작시간	변인	구분										
오전사용 시작시간	주부	8.2	4.7	8.2	4.7	10.6	8.2	16.5	28.2	5.9	1.2	3.5	
	여대생	0.8	0.0	0.8	0.0	4.7	6.3	21.1	21.1	22.7	17.2	3.1	
	비교	$\chi^2=52.15817$ *** df=10											
오전사용 끝시간	변인	구분											
	주부	1.2	5.9	4.7	2.4	2.4	3.5	22.4	32.9	12.9	11.8		
	여대생	0.0	0.0	0.8	0.8	1.6	6.3	14.1	21.9	33.6	21.1		
비교	$\chi^2=29.73808$ *** df=9												

*** P<.001

오전사용 시작시간은 주부는 9시, 여대생은 7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오전사용 끝시간은 주부는 12

시, 여대생은 9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오후사용의 시작시간에 있어서는 주부의 경우에는 8시가 가장 많고, 1시에서 11시까지 그 사용시간이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대생의 경우에는 7시에서 10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오후사용의 끝시간은 주부의 경우는 10시가 가장 많았고 여대생은 11시가 가장 많았다. 거실 사용의 총시간은 주부와 여대생 모두 0-2시간이 가장 많고(각 47.2%, 49.3%), 그 다음으로 주부는 7시간 이상(20.4%), 여대생은 3-4시간(37.8%)으로 주부의 거실 사용시간이 많았다(p<.001).

이와 같이 거실공간의 사용시간대나 사용시간수에 있어 주부와 여대생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간 사용시간이나 주 사용자를 고려한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3) 거실공간에서의 생활행위

거실공간에서의 생활행위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거실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 13항목에 대해

2-1점(행위를 한다:2점, 하지 않는다:1점)으로 얻어진 점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담소 자녀와의 대화, 가족모임, 가족회의, 차 과일 등의 후식의 평가항목으로 된 제 1요인 [가족단란요인], 식사, 음식재료 손질의 평가항목으로 된 제 2요인 [식생활요인], 자녀의 취미생활, 가장의 취미생활의 항목이 포함된 제 3요인 [취미생활요인], 어린이놀이, 육아의 항목이 포함된 제 4요인 [자녀생활요인], 낮잠, 전화의 항목이 속한 제 5요인 [개인생활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2.1%이다(표 3).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구조의 특징은 식생활행위요인이 제 2요인으로 분류된 점인데 이 요인은 거실에서의 생활행위를 분류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거실의 생활행위로 분류되지 않았거나(이선수, 1986, 정연미, 1987, 이명옥, 1991),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가사행위라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행위로 분류되었으며 그나마 요인순위가 낮게 나타나는(유우상, 1987, 선병룡, 1987)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과

〈표 3〉 생활행위의 요인분석

요인	평가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요인명명
		I	II	III	IV	V		
I	가족담소	.773	.044	.016	-.110	-.080	.619	가족단란
	자녀와의 대화	.766	-.001	.093	-.031	.143	.616	
	가족모임	.731	-.071	.077	.032	.091	.555	
	가족회의 차, 과일 등의 후식	.647	-.104	.081	.140	-.028	.456	
		.613	.247	-.189	.111	.243	.544	
II	식사	.193	.794	.175	.007	-.061	.703	식생활
	음식재료 손질	-.193	.772	-.130	.076	.092	.664	
III	자녀의 취미생활	.095	.069	.799	-.110	-.008	.664	취미생활
	가장 취미생활	.013	-.047	.765	.260	.158	.681	
IV	어린이 놀이	.009	.090	-.045	.787	-.146	.650	자녀생활
	육아	.055	-.011	.126	.719	.133	.554	
V	낮잠	-.037	.201	.127	-.062	.811	.720	개인생활
	전화	.348	-.275	.012	.078	.663	.643	
고유치		2.90	1.52	1.38	1.20	1.07		
설명변량		22.3	11.7	10.6	9.2	8.2		
누적변량		22.3	34.0	44.6	53.8	62.1		

〈표 4〉 조사대상별 거실공간에서의 생활행위 요인구조

대상 \ 요인	제 1요인	제 2요인	제 3요인	제 4요인	제 5요인	전체설명량(%)
	주부	취미생활	식생활	자녀생활	개인생활	
주부	가족단란	취미생활	식생활	자녀생활	개인생활	65.3
여대생	가족단란	식생활	자녀생활	취미생활	개인생활	61.7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거실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엌에서 전적으로 행해져야 할 식생활행위가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거실-부엌의 완전한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식생활 행위라고는 하나 본 연구에서 분류된 식생활행위의 생활행위 내용을 보면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가사노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음식만들기 전 단계인 다듬기나 식사라고 하는 가족 단란적인 행위로서 가족단란행위에는 가족담소나 자녀와의 대화 뿐 아니라 음식재료를 다듬거나 식사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김미희(1991)의 거실의 주생활행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가사작업이 제 1요인으로 추출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부와 여대생의 생활행위 분류를 각각 실시해 본 결과, 〈표 4〉와 같이 주부와 여대생 모두 가족 단란행위를 제 1요인으로 생각하나 주부는 식생활행위를 제 3위, 여대생은 제 2위로 분류하고 있어 젊은 세대가 식생활행위를 보다 공적(거실공간)행위로 보고 주부는 가사노동적(부엌공간)행위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

으로의 거실공간 계획에는 미래 주부들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거실가구에 대한 실태 및 의식

1) 거실가구 구입과 거실가구 배치시 고려사항

거실가구 구입시 고려사항은 〈표 5〉와 같이 주부와 여대생 모두 가구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편안함'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 사항으로 주부의 경우에는 '실용성'(20.4%), 여대생의 경우에는 '디자인'(26.4%)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여대생의 경우에는 미적 요소인 가구의 '디자인'을 주부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배치시의 고려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표 5), 주부와 여대생 모두 편리성을 위주로 가구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남경숙(1982), 이명옥(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시기로 보아 1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에도 관계없이 거실가구를 배치할 때의 고려사항으로는 가구의 편리성을 최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거실가구 구입과 거실가구 배치시 고려사항

구분 \ 변인	거실가구 구입시 고려사항						거실가구 배치시 고려사항					
	실용성	경제성	편리성	유행성	디자인	편안함	조화성	장식성	편리성	계절성	가족의 개성	생각나 는대로
주부	20.4	8.3	4.6	3.7	13.0	40.7	9.3	8.3	79.6	4.6	3.7	3.7
여대생	16.2	4.1	4.1	0.0	26.4	41.9	7.4	10.1	79.1	4.1	2.7	4.1
비고	$\chi^2=13.76049$ * df=6						$\chi^2=0.48678$ df=4					

* $P < .05$

2) 거실가구의 사용정도

(1) 주부와 여대생의 거실가구 사용정도

거실가구 사용의 정도를 3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비교한 결과<표 6>, 주부의 경우가 여대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주부의 경우에 전술한 바와 같이 거실공간의 사용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거실가구의 사용정도도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거실가구 사용정도

독립	종속	거실가구 사용정도	
		평균	SD
	주부	2.19	0.62
	여대생	1.97	0.56
	t-value	-2.99**	

** P<.01

(2) 주거환경적 변인과 거실가구 소유형태에 따른 거실가구 사용정도

주거환경적 변인(주택유형, 주택 소유형태, 집전체 평수, 방의 갯수)에 따른 거실가구의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주부와 여대생 모두 주택 유형에 따라서만 거실가구 사용정도에 차이가 나타나(P<.05), 독립주택의 경우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실가구 사용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주거환경적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거실가구 소유형태에 따른 거실가구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표 7>, 주부의 경우에는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 거실가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1) 여대생의 경우에는 인체계 가구와 건축계 가구를 모두 소유한 경우 거실가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P<.01)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축계 가구만 소유한 집단과 모두 소유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3) 거실가구에 대한 의식에 따른 거실가구의 사용정도

거실가구에 대한 의식에 따라 거실가구의 사용정

<표 7> 주거환경적 변인과 거실가구 소유형태에 따른 거실가구 사용정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거실가구의 사용정도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주택 유형	독립주택	2.08(59)	4.2153*		1.86(96)	10.9803**	
	공동주택	2.33(49)			2.17(52)		
	계	2.19(108)			1.97(148)		
가구 형태	건축계가구만소유	1.96(25)	4.1424**		1.70(33)	5.7578**	a
	소유 인체계가구만소유	2.43(7)			2.00(15)		
	모두 소유	2.29(72)			2.08(97)		b
	아무것도없음	1.50(4)			1.33(3)		
	계	2.19(108)			1.78(148)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5

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표 8>, 주부와 여대생간에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가구사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가구배치에 만족하는 집단이 거실가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와 여대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거실가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여 많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가구구입-배치-사용이 모두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겠다.

<표 8> 거실가구에 대한 의식에 따른 거실가구의 사용정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거실가구의 사용정도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거실가구에 대한 의식	거실가구 사용의 편리성	불편	3.2227*		1.77(13)	4.4509*		
	가구	보통			2.14(42)			1.85(54)
	원리	2.31(52)			2.10(80)			b
	계	2.19(107)			1.98(147)			
배치 만족도	거실가구 배치	불만족	8.4097***		a	3.1223*		
	보통	2.22(49)			1.87(71)			
	만족	2.52(27)			2.17(29)			b
	계	2.21(107)			1.97(148)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 P < .001 * P < .05

4. 거실공간과 거실가구에 대한 만족도

1) 거실공간과 거실가구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거실공간의 만족도(거실넓이 만족도, 거실사용 만족도)와 거실가구의 만족도(가구의 편리도, 가구배치 만족도, 가구량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표 9>, 거실공간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대생과 주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여대생이 주부에 비해 거실넓이와 거실사용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실가구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구의 편리도와 가구배치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량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대생의 경우가 주부의 경우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거실공간에서의 생활시간이 많고 거실가구의 사용정도도 더 많은 주부의 경우가 여대생의 경우보다 현재의 가구량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거실공간과 거실가구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종속 독립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가구 만족도					
	거실넓이 만족도		거실사용 만족도		가구의 편리도		가구배치 만족도		가구량 만족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주부	1.64	0.66	1.94	0.43	2.36	0.69	1.96	0.74	1.79	0.64
여대생	1.74	0.72	2.02	0.42	2.46	0.65	1.87	0.71	2.03	0.63
t-value	1.10		1.54		1.07		-.99		3.06**	

** P<.01

2) 거실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 사용실태(거실 사용형태, 거실 사용양식)에 따라 거실공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표 10>, 거실넓이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의 경우 거실 사용형태가 거실전용인 경우가 타실과 겸용인 때 보다 더 만족하며, 거실 사용양식이 절충식의 경우 가장 만족하였으며, 절충식인 집단과 좌식인 집단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경우에도 거실전용인 경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양식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거실사용 만족도는 주부와 여대생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거실 사용형태가 거실 전용인 경우가 타실과의 겸용인 경우보다 만족하며, 거실 사용양식에 있어서는 절충식-의자식-좌식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충식인 집단과 좌식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3)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가구의 사용실태(가구 소유현황, 가구 사용정도)에 따라 거실공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표 11>, 넓이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의 경우 가구 소유형태가 건축계 가구만 소유한 집단과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에 더 만족하였다. 여대생의 경우 건축계와 인체계를 모두 소유한 경우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사용정도에 따라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거실사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는 가구의 사용정도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내었는데 사용정도가 많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금 사용하는 집단과 보통 사용, 많이 사용하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에는 가구 소유현황에서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를 모두 소유한 경우 거실사용 만족도가 높으며 가구사용 정도에서는 주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정도가 많을수록 거실사용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가구 만족도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가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표 12>, 주부의 경우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여대생의 경우에는 거실가구의 사용실태 즉, 가구 소유형태와 건축계 가구의 배치형태에 따라 거실가구의 편리도와 배치만족도에 차이를 보여 거실가구 소유형태에 있어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와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를 모두 소유한 경우 거실가구의 사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며, 건축계 가구의 배치형태가 병렬형일때 가장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일자형의 경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

〈표 10〉 거실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구분 변인			거실 공간 만족도											
			거실넓이 만족도						거실사용 만족도					
			주부			여대생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거실 사용 형태	거실 전용	1.77(81)	13.1794***	a	1.84(111)	9.7338**	b	2.02(81)	11.9701***	a	2.08(110)	9.1694**	b	
	타실과 겸용	1.26(27)			1.42(36)			1.69(25)			1.84(36)			
	계	1.64(108)			1.73(147)			1.94(106)			2.02(146)			
사용 실태	거실 의자식	1.71(21)	6.0091**	a	1.89(38)	2.3064	b	2.02(21)	5.2156**	a	2.13(38)	15.5804***	a	
	침상식	1.82(50)			1.78(58)			2.04(49)			2.16(58)			
	양식 좌식	1.35(37)			1.58(52)			1.76(36)			1.78(51)			
	계	1.64(108)			1.74(148)			1.94(106)			2.02(147)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P <.001 **P <.01

〈표 11〉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구분 독립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넓이 만족도						거실사용 만족도					
			주부			여대생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거실 가구 현황	건축계가구만 소유	1.40(25)	4.2143**	a	1.48(33)	3.1463*	b	1.79(25)	1.8158	a	1.70(32)	12.9807***	b	
	인체계가구만 소유	2.29(7)			1.80(15)			2.11(7)			2.08(15)			
	모두 소유	1.68(72)			1.84(97)			1.98(71)			2.14(97)			
	아무것도 없다	1.25(4)			1.00(3)			1.75(3)			1.50(3)			
계	1.64(108)	1.74(148)	1.94(106)	2.02(147)										
사용 실태 정도	가구 조금 사용	1.33(12)	1.5994	a	1.48(25)	2.2964	b	1.55(11)	8.0642***	a	1.84(24)	3.3482*	a	
	보통	1.65(63)			1.81(102)			1.92(63)			2.04(102)			
	많이 사용	1.73(33)			1.67(21)			2.11(32)			2.15(21)			
	계	1.64(108)			1.74(148)			1.94(106)			2.02(147)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 P <.001 ** P <.01 * P <.05

타났다. 거실가구 배치만족도에 있어서는 모두 소유한 경우 가장 만족하며 건축계 가구만 소유한 집단과 모두 소유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5) 거실가구 만족도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가구의 만족도에 따른 거실공간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13), 거실넓이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는 거실가구량이 적당한 것이 적은 것보다 만족하며 거실가구 배치에 만족할수록 거실공간의 넓이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는, 가구가 편리하고, 가구량이 적당하며, 거실가구 배치에 만족하면 거실 넓이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실의 사용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는 거실가구의 사용이 편리할수록 만족하며, 불편집단과 보통, 편리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통집단과 편리집단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거실가구량이 많을수록 공간사용에 만족하였으며, 가구량이 적은 집단과 적당히 많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 거실가구의 배치가 만족스러울수록 공간사용에 만족하

〈표 12〉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가구 만족도

독립 변인			거실가구 만족도											
			가구사용의 편리도						가구배치 만족도					
			주부			여대생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거실가구 형태	지식	건축계가구만 소유	2.28(25)	0.5733		2.00(32)	8.5957***	b	1.88(25)	0.4209		1.55(33)	3.3176*	b
		인체계가구만 소유	2.29(7)			2.60(15)			2.14(7)			1.93(15)		
	모두 소유	2.38(71)	2.60(97)			1.99(72)			1.98(97)					
	아무것도 없다	2.75(4)	2.00(3)			1.67(3)			1.67(3)					
	계	2.36(107)	2.46(147)			1.96(107)			1.87(148)					
사용실태	건축계	일자형	2.34(61)	0.2585		2.47(75)	2.7385*		2.00(60)	1.1982		1.95(75)	1.2916	
		ㄴ자형	2.24(17)			2.28(32)			1.71(17)			1.73(33)		
	배치	병렬형	2.46(13)			2.76(21)			2.15(13)			2.00(21)		
	형태	분산형	2.36(11)			2.25(12)			1.83(12)			1.67(12)		
	계	2.34(102)	2.45(140)			1.95(102)			1.88(141)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 P < .001 * P < .05

〈표 13〉 거실가구 만족도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

독립 변인			거실공간 만족도											
			거실넓이 만족도						거실사용 만족도					
			주부			여대생			주부			여대생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평균(N)	F 값	S
거실가구사용의 편리도	지식	불편	1.38(13)	3.0086		1.38(13)	6.5063**	a	1.42(13)	22.1330***	b	1.50(13)	45.9390***	b
		보통	1.52(42)			1.54(54)			1.81(54)					
	편리	1.79(52)	1.91(80)			2.14(52)			2.25(80)					
	계	1.64(107)	1.73(147)			1.94(106)			1.85(147)					
의견만족도	거실	적당	1.39(36)	5.1365**		1.48(27)	3.8633**	a	1.60(35)	22.7566***	b	1.56(27)	29.9279***	b
		가구량	적당			1.81(59)			1.87(89)			2.10(58)		
	만족도	많다	1.54(13)			1.59(32)			2.13(13)			2.23(32)		
	계	1.64(108)	1.74(148)			1.94(106)			2.02(147)					
도	거실	불만족	1.29(31)	9.6074***		1.48(48)	4.9569**	b	1.52(41)	66.2701***	b	1.67(48)	72.6411***	b
		가구	적당			1.65(49)			1.83(71)			1.95(48)		
	배치	적당	2.00(27)			1.93(29)			2.40(27)			2.51(29)		
	만족도	만족	1.64(107)			1.74(148)			1.94(106)			2.02(147)		

S : Scheffe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P < .001 **P < .01

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는 집단과 만족의 집단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에도 거실의

가구사용이 편리하고, 가구량이 많고, 거실가구의 배치에 만족할수록 거실공간의 사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주부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실공간과 가구의 사용의식 및 실태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얻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거실공간에 대한 실태 및 의식 비교 결과, 거실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주부와 여대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의 제요소를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성세대(주부)와 자녀세대(여대생)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거실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내에서 최대의 공간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구선택, 배치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겠다. 한편 거실공간의 사용시간대나 사용시간수에 있어 주부와 여대생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공간 사용시간이나 주 사용자를 고려한 가구와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가족원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가장 갈등이 많이 야기되는 공간이 거실이고 주거공간내에서 행위간 갈등이 주부-자녀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연숙 외, 1990)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거실공간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져 사용자간의 행위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생활행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거실공간에서 행해지는 생활행위는 가족단란, 식생활, 취미생활, 자녀생활, 개인생활 행위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아 거실공간은 주거내의 각 공간 중에서 가장 다양한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겨지며 특히 식생활행위는 가사작업행위의 측면과 소극적 단란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거실에서의 생활행위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주부와 여대생의 의식을 비교한 결과, 예비주부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이 식생활행위를 보다 공적인 거실공간내에서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거실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이 결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거실가구에 대한 실태 및 의식을 살펴본 결

과, 주부와 여대생은 거실가구 구입시의 고려사항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젊은 세대인 여대생이 좀 더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실공간내에서의 가구 사용정도는 주부가 더 많고, 주부와 여대생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사용이 편리할수록, 가구배치에 만족할수록 가구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는 인체계 가구만 소유한 경우, 여대생은 건축계와 인체계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 거실가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거실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주된 사용자를 파악하고, 주된 사용자의 욕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용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가구선택과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구입한 가구가 충분히 편리하게 공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구배치를 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거실공간과 가구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실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거실가구 사용실태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는 차이를 보여 주부는 인체계가가구만 소유한 경우 거실넓이에 가장 만족하나 여대생은 건축계와 인체계를 모두 소유한 경우 거실넓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실가구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 여대생이 주부보다 가구량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부는 거실가구의 소유형태와 건축계가구 배치형태에 따른 거실가구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거실가구 만족도에 따른 거실공간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부와 여대생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거실공간의 만족도는 가구의 사용만족, 가구의 편리성, 가구량의 적정성, 가구배치의 만족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가구구입이나 가구배치를 주로 하는 가족원(여기서는 주부로 봄) 뿐 아니라 거실공간과 가구를 사용하는 가족원 즉 사용자 모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구성원들의 의식 및 사용실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

겠으며, 본 연구는 그 기초적 연구로서 선행연구들이 평형별, 주택유형별, 거주수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임에 반해 사용자인 주부와 여대생을 변인으로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가구의 사용자인 가족원의 욕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방법도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공간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남경숙, 아파트 거실 가구배치가 생활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2.
- 2) 선병룡, 주호평면유형이 거실의 가구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1987.
- 3) 유우상, 소규모 아파트의 거실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7.
- 4) 이명옥,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1991.
- 5) 이선수, 주거행위 및 가구사용에 따른 아파트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86.
- 6) 정연미, 아파트 거실공간에 대한 조사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7.
- 7) 조원덕, 가구의 이용에 따른 주행위 영역의 구성과 공간효과, 충남대 대학원, 1990.
- 8) 田中宏子, 住宅居間における裝備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 1990.
- 9) 이연숙, 김미희 외, 주거공간내에서의 주생활행위 및 행위간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6권 3호, 1990.
- 10)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 대학원 1991.
- 11) 안옥희, 실내디자인, 미진사, 1993.
- 12) Corwin Bennet 저, 김광문 역, 인간을 위한 공간, 기문당, 1991.
- 13) 정복상·김상권, 가구디자인, 미진사, 1993.